

미국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 및 대학 보건 제공 체계에 관한 고찰

김영복 · 김현희* · 조형제 · 박천만 · 한창현
서남대학교 보건학부 · * 계명대학교 · 경동정보대학

연구 배경 : 최근 미국 대학생들의 건강 관련 특성 및 대학 캠퍼스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학생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의 보건 제공 체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0년에 접어들면서, 과거와는 달리 대학생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소수 민족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대학생들의 건강 보험 미가입률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에 따라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학 보건 서비스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학 보건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중심 조직은 미국 대학 보건 협회(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ACHA)이며, 전국 대학 건강 조사(ACHA-NCHA) 수행 및 ‘건강한 대학 2010 (Healthy Campus 2010)’, 대학 보건 서비스 권고 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학 보건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통합적인 대학 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대학 보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선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대학 캠퍼스를 주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 및 수행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최근 4년간의 미국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살펴보고, 둘째,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 건강 정보 제공 수준을 알아보고, 셋째,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대학 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최근 4년간의 미국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대학 보건협회(ACHA)가 수행하고 있는 전국 대학 건강 조사(ACHA-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ACHA-NCHA)의 결과 중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문헌 고찰 및 웹 검색을 통해 미국 대학 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대학 건강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미국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던 주요 건강 문제는 스트레스, 감기/독감/인후염, 수면 장애, 친구 또는 가족과의 갈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지난 1년간의 대학 생활 중 경험했던 건강 문제에는 알레르기 및 요통이 가장 많았고, 부비동 감염, 우울증, 인후 감염, 불안 장애, 천식, 귀 감염, 지속적인 스트레스성 상해, 기관지염, 주기적 정서 장애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 대학생들의 비만 수준은 약 65%의 대학생들이 정상 체중을 유지하였고, 과체중이 다소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난 30일간의 약물 사용에 관한 조사에서는 ‘지난 30일 동안 알코올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이 15~18%(4년간 응답률)이었고, ‘지난 30일 동안 쉐넬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이 60~65%(4년간 응답률)이었으며, ‘지난 30일 동안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학생들이 62~66%(4년간 응답률)이었다. 한편 지난 1년간의 대학 생활 중 경험한 정신 건강 문제로는 ‘의기 소침’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탈진’, ‘무기력’이었다. 또한 ‘지난 1년간 1회 이상의 자살을 시도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1.3~1.5%(4년간 응답률)이었다.

대학생들이 그들이 소속된 대학 또는 대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건강 정보로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예방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성폭행/폭력 예방에 관한 정보, 성병 예방에 관한 정보, 신체 활동 및 체력 증진에 관한 정보, 식이조절 및 영양에 관한 정보, 에이즈 예방에 관한 정보이었다. 또한 주요 건강 정보원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친구, 인터넷, 대학 보건 진료소 의료 인력, 보건교육자, 교원, 캠퍼스 또래 교육이었다.

미국 대학 보건 제공 체계를 살펴보면, ‘The Garrett Lee Smith Memorial Act’,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등이 대학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계 법령이며, 미국 고등 교육 지침 개선을 위한 회의(CAS)가 대학 업무 전반에 관한 표준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대학 보건 협회(ACHA)는 대학 또는 대학교의 보건 관련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조직된 단체로서, 학생 및 대학 캠퍼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의료 인력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을 제공 할 뿐 만 아니라, 건강 옹호, 교육, 의사 소통, 건강 결과, 서비스의 제공을 돕고 있다. 특히 대학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고 지침 개발 및 각 대학 보건 진료소의 인증 절차를 돕고 있으며, 제공되는 주요 권고 지침에는 문화적 적응, 학생 운동 선수를 위한 약물 교육/검사, 윤리적 원칙과 지침, 국제 교환 학생/연구자 및 그의 가족을 위한 건강 보험, 유행성 질환에 관한 지침, 대학 캠퍼스 내의 성 폭력 예방, 대학 캠퍼스에서의 흡연 예방, 대학 입학 허가를 위한 예방 접종 권고 지침, 법적 제재 절차, 학생 건강보험/혜택 프로그램의 표준 지침, 대학 캠퍼스 결핵 선별검사, 대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표준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대학과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건강 조사(ACHA- NCHA)를 수행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권고안 수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 이상과 같이 미국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은 주요 건강 문제 및 건강 행동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미국의 대학 보건 서비스는 국가 단위의 조직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행 방안 및 권고 지침을 전문가의 의견 합의 도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의 보건 진료소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증 제도 및 권고 지침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